

Toluene, 660달러로 52달러 폭등

FOB Korea 655-665달러 형성 ... 일본 플랜트 트러블이 결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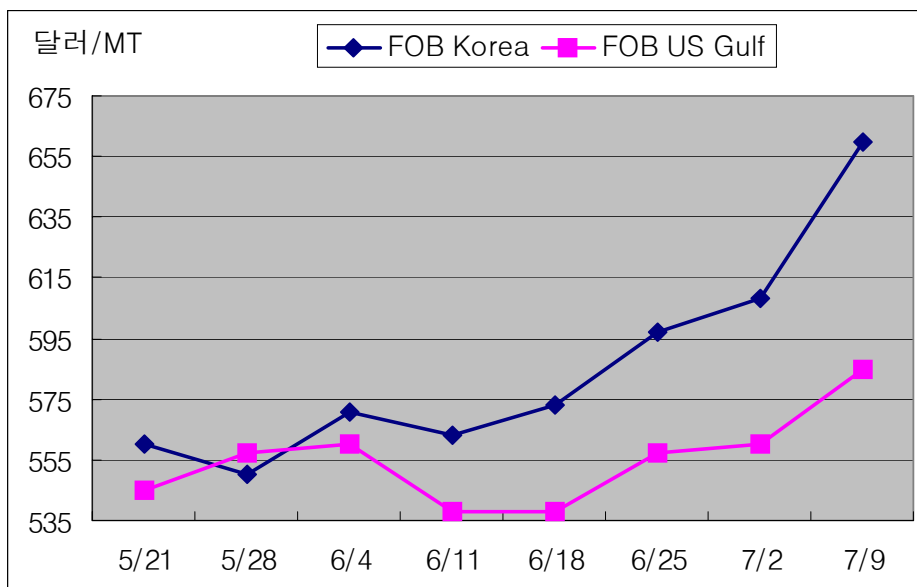
Toluene 가격은 7월9일 FOB Korea 톤당 655-665달러로 52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톨루엔 시장은 국제유가 강세 전환에 따라 벤젠가격이 900달러 가까이 폭등하고 아시아 플랜트들이 여름철 정기보수에 들어감에 따라 근래 최고수준으로 폭등했다.

특히, 일본 Nippon Petrochemical의 Marifu 및 Muroran 소재 BTX 플랜트가 트러블을 일으켜 가동을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Tonen General의 Wakayama 소재 Reformer 플랜트도 트러블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톨루엔 수요기업들이 지나친 가격상승을 경계하며 구매를 늦출 기미를 보이고 있어 추가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oluene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톨루엔 가격은 7월9일 Commodity 그레이드가 FOB US Gulf 갤런당 190.00-195.00센트로 톤당 평균 585달러를 형성해 25달러 상승했으며, Nitrate 그레이드는 202.00-204.00센트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4/07/16>